우리 모두는 음반 산업의 불분명한 회계, 아티스트의 소득저하,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개탄스러운 음악남용이라는 악몽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디지털 수익 스트림 뿐만 아니라 CD, 음반, 카세트의 전성기 때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해진 오늘날의 회계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디지털 유통체계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다.

분노하는 ‘과거의 위대한’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더욱 유동적인 정보와 문서업무의 보급으로 인해 과거의 환영은 오늘날의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통 아티스트들이 디지털 저작권 수익금과 저작권 사용료 계산법을 두고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소송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10배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디지털 뮤직 뉴스, 2012년 9월 19일*

*“워너브라더스 레코드의 아티스트를 우려먹는 52가지 방법”*

[*http://www.digitalmusicnews.com/permalink/2012/120919jamestaylor*](http://www.digitalmusicnews.com/permalink/2012/120919jamestaylor)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변화와 함께 유통 포맷과 소득원의 엄청난 확산을 목도하고 있다. 유통 포맷 중 일부는 특히 자체 유통되는 아이튠스 다운로드처럼(튠코어(Tunecore), 리버브네이션(ReverbNation), 씨디베이비(CD Baby) 등 다른 파트너를 통해) 확실한 명세서와 지출을 제공한다. 스트리밍 포맷(쌍방향과 비쌍방향 모두 포함)을 포함하는 다른 포맷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결제방법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디지털 뮤직 뉴스, 2012년 7월 9일*

*“업계 변호사: 스포티파이 어닝(Spotify Earnings)을 거치는 대형 음반회사는 드물다”*

[*http://www.digitalmusicnews.com/permalink/2012/120709spotify*](http://www.digitalmusicnews.com/permalink/2012/120709spotify)

좋은 소식은 과거보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고 음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는 것이다(싸이가 그 예이다). 문제는 회계와 투명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포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음악남용, 음반 트랙킹, 불법복제, 변변찮은 음악수익과 같은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것이 특히 워너 뮤직 그룹과 같은 대형 음반회사의 수익원 구조이다.

*참고 이미지:* [*http://www.digitalmusicnews.com/images/wmgq22012.jpg*](http://www.digitalmusicnews.com/images/wmgq22012.jpg)

이미지에 나오는 파이차트는 낮은 수익, 훨씬 큰 유통 포맷 및 가능성, 극도로 복잡한 환경이라는 훨씬 더 광범위한 트랜드를 보여준다. 한국, 미국, 세계에서의 2012년, 2015년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을 살펴보자.

본 논의에서는, 아티스트, 매니저, 저작권 소유권자, 주주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부기맨(무시무시한 유령)”을 파헤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발언 중 끼어들기, 도전과 같이 디지털 뮤직 뉴스를 규정하는 모든 정신으로 무장된 살아있고 뜨거운 논쟁을 기대한다.